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탈당

본회의장서 셀폰으로 보좌관 명의 거래앱 조작 포착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5일(한국시간)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 지시와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자진 탈당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의원이 오후 8시경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고 전했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 의원에게 "자진 탈당할 경우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는 불가능하다" 며 "의혹의 진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 며 "저로 인해 분노하고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 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전날 언론 보도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일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휴대전화로 조작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해당 계좌는 그의 보좌관 명의로 확인됐다. 거래 창에는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 종목이 표시됐고, 투자 규모는 매입가 기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검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출범 36일 만에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상대로 첫 소환 조사를 벌인 다음 날 나온 조치다.

특검팀은 7일(한국시간)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각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군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연루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에서 정한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 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조치였다. 특검 내부에서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수사 과정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특검은 신속한 신병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특검법에 따라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수사 대상은 총 16가지에 이른다. 이번 1차 소환 조사에서는 그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군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이들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해 시세조종에 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9명이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판결문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명시돼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체포 시도 실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한국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끝내 무산됐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실패한 이후 6일 만의 재집행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며, 물리력까지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렬한 거부로 부상 위험이 제기돼, 결국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을 포함해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끝내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 각종 보험 취급 —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